2025.6.8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으로 여는 갈라디아서-

출애굽기 20:3-6, 갈라디아서 1:6-7

정윤돈 목사님

* **출20:3-6**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갈1:6-7**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모든 헌신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의 불가능한 모든 부분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과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과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초창기의 사역 때에 기록한 것이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잘못된 다른 복음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많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힌두교 외의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상황이었다. 힌두교가 진리인 줄 알고 좇고 있다. 시크교도 힌두교의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이다보니 시크교도인 수십만 명을 학살했다. 이렇듯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고, 이것은 망할 복음이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려야 한다. 다른 종교는 모두 무엇인가 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다른 종교는 선행과 고행을 말하며 무엇인가 지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얼마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해야 할까?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묵상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참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예수님은 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셨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1. 다른 복음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1)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고 종 삼으려고 하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우리를 올무, 틀, 함정, 제도로 무엇인가 붙잡아서 마귀의 종 삼고자 한다. 하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다. 진리로 해방하셨다. 복음으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이 참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모두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지금도 이 복음이 없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 아직도 우상과 사탄의 종이 되어있다. 십계명의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다. 사탄이 우리를 종 삼는 방법 중 하나가 우상이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더 귀한 게 있다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육을 빼앗아 노예 삼는다. 그 증거로 여러분에게 행복이 없고 고통한다. 마귀의 종이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내시기 바란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결론, 답이 나고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에게는 지식, 돈, 능력이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오직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인도를 가서 오직 전도, 선교로 결론 낸 장로님을 만났다. 그분에게는 돈이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돈 벌어도 된다. 여러분의 자존심, 자녀, 교회, 돈, 사상, 이념을 여러분의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로 답, 결론, 끝냈기 때문에 요셉처럼 노예되고 종살이를 해도 종이 되지 않고 총리가 된다. 이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해야 한다. 내가 어떤 밑바닥 일을 하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요셉처럼 해야 한다. 이권, 이익, 자리 따라가면 안 된다. 이번에 선교사님이 과거 목사님들 사역을 했더니 다들 이익 따라가서 이제는 청년들 사역을 한다고 한다. 때 묻지 않은 청년들 사역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 제가 이번에 인도 청년들에게 '주여', '세계복음화' 단어를 알려줬다. 인도에 30세 이하 청년이 7억 명이라더라. 지금 중요한 IT회사의 CEO들이 다 인도 사람이다. 너무 세계복음화하기 좋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소, 돼지도 못 먹고 서로 싸우고 죽인다. 힌두교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주변 차가 방해된다며 때려 부순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한다. 구원의 복음도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2) **다른 복음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성도들도 있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한다. 이단한테 넘어가고 잘못된 복음으로 넘어간다. 구분을 못 한다. 한국 교회가 다 오직 복음 없어지고 있다. WCC 행사를 하는데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한다.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이제 WCC는 오만 잡종교가 모이는 행사가 되었다. 오직에서 벗어나고 다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렸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다. 정작 자신들의 삶은 율법적이지 못했다. 이게 지도자들의 상태다.

(3) **성도들을 이간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되게 하지만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열하게 한다. 왜냐하면 다른 영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옳은 말을 하면서 교회를 깨고 분열시키고 거짓말을 한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옳은 말, 착한 말, 바른 말로 분열시키고 망치면 그건 바른 게 아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교회를 위해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복음 가진 노예가 되기를 바란다. 그게 요셉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복음 가진 노예가 되지 않으면 분열시키고 깨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건 다른 복음이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분열하려는 사람들은 자기편을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되게 하여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4)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① 율법을 따르는 것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삶이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 ②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3절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한다.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으니까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자녀, 감정, 사고방식, 이념, 지식, 자리가 우상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 죄 앞에 무력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하는 필요성을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감사하게 된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모든 구원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안식일을 얼마나 지켜야 구원받을까?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선행을 얼마나 해야 구원받을까?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2.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일까?

(1)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 완성되고 정리되었다. 갈라디아서를 잘 정리해서 확장한 게 로마서다. 그리고 로마서가 우리 신학의 시작이 된다.

(2)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도덕법과 율법은 선한 것이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영적인 도전을 해야 한다. 그러한 실천목록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는 가득 나와 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더욱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다. 바울의 성경을 보면 항상 후반부에는 윤리, 도덕과 율법을 지키도록 강조한다. 그러면 누가 이 율법과 도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삶도 되어진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정도를 넘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윤리, 도덕이다. 그렇게 되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한다. 게으르고 나태한 인도 청년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 복음 받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성령이 임하면 오대양 육대주 땅끝까지 이르러 오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성취를 본다.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를 굉장히 좁게 만드셨다. 일주일을 남부, 일주일을 동부, 29개 주를 순회하며 사역하시고 제자를 키우신다. 복음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전도자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믿는다. 세계복음화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3)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내용을 많은 성도들은 잘못 알고 있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설명할 때 '나의 성질과 성격과 자존심을 죽여야 된다'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의 뜻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2장 20절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2장 19절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 딱 그 말이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새 생명을 얻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희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영육 간에 흠과 티 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온전해지는 것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하는 만큼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했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란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있는 너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질되어 어느 현장에서도 빛과 소금의 망대,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란다. 특별히 후대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 그 분야를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정말 복음을 깨닫는 게 참된 영적 서밋이다. 복음으로 끝난 사람은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에 속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로 답 내고 결론 내고 끝낸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땅끝 복음화하는 축복을 주시고 세계복음화하는 제자를 붙여주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직접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복음을 쫓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유혹과 말, 다른 종교, 기복주의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찬을 통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